

## 제목

컴퓨터 정보보안전공 202310809 심민경

### 1. 서론

매일경제 「‘한달에 450만원’...이재명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간병살인’을 언급하며 간병비용을 건강보험 제도 내로 편입할 경우 발생할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듯 정치계에서 간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간병으로 일어나는 비극들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간병살인’은 끝없는 간병에 지쳐 간병인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이다. 간병살인은 보통 가족 간에 그것도 환자가 중증 환자일 때 주로 발생한다. “가족을 살해한 죄로 받는 평균 형량은 5년 5개월(집행유예 제외)로 집계됐다. 2009년 7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살인죄의 평균 형량이 약 12.1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낮은 셈이다. ‘5년 이상’이 35.2%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34.2%, ‘3년 이상 5년 미만’이 24.1%, ‘3년 미만’이 6.5%에 그쳤다. 존속살인 등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법원에서 가해자의 상황을 참작했기 때문이다.”<sup>1)</sup> 이렇게 모두가 주목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인의 살인을 감형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다.

### 2. 본론

#### 2.1 우발적인 범행동기

간병살인의 범행동기는 대부분 우발적이다. 서울신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은 전쟁이다, 죽어야 끝나는」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동기 중 ‘순간적 분노’가 38.9%로 가장 높았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환자와의 갈등이 쉽게 빚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올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장기 간병 스트레스’가 38.0%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를 살해하거나 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라는 제목의 설문조사에 가장 많이 ‘매우 자주’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간병 기간이 7-10년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매우 자주’를 답한 응답자들의 간병 기간은 10년 이상이다.”<sup>2)</sup> 간병 기간이 길수록 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가 피해자 살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난폭한 치매 증세’는 32.4%를 차지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 또, 고집이 세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난폭한 행동들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신변비관’은 24.1%, ‘다른 가족 부담 완화’, ‘동반자살 시도’가 각각 20.4%를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환자 고통 경감’이 각각 13.0%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 이외의 다른 범행동기들이 ‘기타’로 표기되어 14.8%를 차지했다.

#### 2.2 간병에 대한 어려움

간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중증 환자인 가족의 간병은 가족 전체를 경제적 압박에 빠져들게 한다. 서울신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가족 간병 4명 중 3명 “경제적 압박”... 월평균 191만원 지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신문이 한국치매협회, 네이버 ‘뇌질환 환우 모임’ 등과 합

1)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30쪽.

2)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70쪽.

께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3.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료비 부담'(35.1%)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사직'(26.3%)과 '근무시간 단축'(25.4%)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 달에 감소한 수입이나 지출 증가 규모를 적은 결과 평균 191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2292만원이다. 가족이 아프면 일단 금융상품에 손을 댔다. 53.1%가 적금이나 보험을 깬다. 다음 단계는 빚이다. 40.1%가 대출을 받았다. 이런 영향으로 32.5%는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집을 처분한 예도 16.6%나 됐다.

경제 외적 영향도 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40.8%가 답했다. 가족 중 누가 경제적 부담을 할 것인지 또는 누가 간병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33.8%가 답했다. 중증 환자가 된 부모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녀가 있다면 부모를 돌보느라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노후 준비에 차질이 간다고도 47.8%나 응답했다. 적금과 보험을 깨고 빚을 지며 집을 팔아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고령화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치매 환자 수는 935,086명이다. 2022년 노인 인구가 9,010,545명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다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개방포털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는 지난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년 1,464곳으로 1년 사이에 118곳이 폐업하였다. 2022년에는 1,435곳으로 2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치매 환자가 늘어가는 실정에 줄어드는 요양병원의 수는 치매 환자가 오롯이 가족 간병인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증 치매 환자는 폭력성이 매우 증가하기도 한다. 간병인을 폭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폭행하기도 한다. 또, 의심, 망상, 우울증 같은 이상행동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치매 환자의 행동을 간병인이 혼자 부담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문제, 경제 외적 문제들이 겹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범행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 3. 반론/재반론

#### 3.1 반론

감형은 악용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MBC 보도에 따르면 13살 중학생이 20차례 넘게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쳤다. 경찰에 두 번이나 잡혔지만, 자신은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그렇게 풀려난 뒤 범행을 반복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3.2 재반론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중증 환자인 가족에 대한 간병인의 살해를 감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감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허씨의 첫째 아들은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1급이다. 첫째 아들을 돌봐야 하는 탓에 돈을 벌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허씨는 뇌출혈 선고를 받았

다. 때마침,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다. 허씨는 아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뒤 수면제를 먹고 아파트 복도로 나가 뛰어내리려 했지만, 도중에 쓰러져 살았다.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임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형량이었다. 법원은 허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수십 년간 정성 들여 보살펴온 것을 인정했다. 고령에다 지병이 있고, 남은 가족을 생각해 만아들을 살해했다는 점, 또 범행 후 함께 죽으려한 점, 허씨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허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sup>3)</sup> 이렇게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감형하는 것이고, 법에 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과 같이 이를 악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4. 결론

위의 근거들을 들어 필자는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인의 살해를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증 환자에 대한 가족 간병인들의 살해의 감형이 악의적인 사용없이 원래 의도대로 사용된다면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할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상태가 적힌 진료진단서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자주 만났거나 둘을 잘 아는 가족 및 지인들의 증언도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감형 유무를 따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간병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증 환자를 둔 가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족 간병인이 일과 간병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간병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연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간병휴직(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무급이 원칙이다. 휴직이 가능한 간병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로 한정돼 있다. 단기간만 쉬는 간병휴가는 없는데다 한 번 휴직하면 최소 30일을 쉬어야 한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다. 2015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한 명이라도 이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는 4%에 불과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6년에 발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병휴직 이용을 늘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소득 보전”이라며 “한국 직장인들은 무급을 감당할 수 없어 간병 휴직을 포기하거나 육아휴직 등 월급을 보전받을 수 있는 다른 휴직 제도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sup>4)</sup>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도심권사업에 따르면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를 살피기 위해서는 <슬기로운 자기 돌봄 과정(PTC)>을 진행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관리에 필요한 도구(방안), 스트레스 줄이기, 부정적 자기 암시 바꾸기, 가족이나 의료 전문인들과 대화하는 방법,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대화법,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알기, 어려운 감정 다스리기, 힘든 결정 내리기 등을 교육기간 동안 배우게 된다. 6주간의 PTC 교육을 통해 외각 지역, 소수 민족,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들, 배우자들, 다양한 간병 상황, 거주 상황, 각각 다른 경제와 교육 정도를 가진 간병인 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을 각 지역으로 확대하면 가족 간병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간병살인이 줄 것으로 필자는 예상한다.

#### 5. 참고문헌

3)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117-123쪽.

4)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루아크, 2019, 195-196쪽.

김혜진, '한달에 450만원'...이재명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매일경제, 2023-11-28, 2023-11-30,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85708>.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간병은 전쟁이다, 죽어야 끝나는, 서울신문, 2019-01-09, 2023-11-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005004>

유영규, 임주형, 이성원, 신용아, 이혜리,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가족 간병 4명 중 3명 “경제적 압박”... 월평균 191만원 지출, 서울신문, 2018-09-05, 2023-11-2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4006002>

중앙치매센터, “치매오늘은”, 중앙치매센터, 2023-11-28,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2.aspx](https://www.nid.or.kr/info/today_list_2022.aspx)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 의료자원통계,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 2023-12-03, <https://opendata.hira.or.kr/op/opc/olapYadmStatInfo.do>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2023-12-0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85%84%EB%B2%95>

MBCNEWS, MBCNEWS 유튜브, MBCNEWS, 2022-02-21, 2023-12-03, <https://www.youtube.com/watch?v=XHWIML36hdw>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3,10-15, 2023-12-03,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3&ccfNo=3&cciNo=4&cnpClsNo=2>

양해순, 가족 간병인을 위한 강력한 자기 돌봄 'Power Tools Caregive', 서울시50플러스재단 도심권사업, 2023-12-03, <https://www.50plus.or.kr/dsc/detail.do?id=2703985>